

“불합리한 사회 고발 시사만화 매운 맛 있어야”



2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전 개막식에 참석한 최호철·박기정·이현세·박건웅·황중환 작가(왼쪽부터).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전시 만난 박기정·이현세·최호철·박건웅·황중환 만화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6월30일까지)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전으로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대표작 6개 작품을 전시 중이다. 5월 광주를 그린 강풀의 ‘26년’, 6·10 항쟁을 소재로 한 최규석의 ‘100℃’ 등의 작품을 모션툰, 원화 등 다양한 구성으로 만날 수 있다.

2일 전시 개막식 참석차 ‘폭탄야’의 박기정, ‘머느리밭꽃에 대한 보고서’의 이현세, ‘태일이’의 최호철, ‘제시 이야기’의 박건웅, 시사카툰 ‘삼팔육식’의 황중환 작가가 전시장을 찾았다.

꾸준히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여타 작가들과 달리 대중만화라는, ‘겉’이 다른 작품을 써 온 ‘공포의 외인구단’ 등의 이현세(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작가는 이번 전시 참여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대중적인 만화를 많이 그렸다. 야구, 축구, 권투 이런 소재들을 주로 담았다. 사회현실을 담은 ‘머느리밭꽃에 대한 보고서’는 당시 그렸던 작품과는 많이 다른 만화다. 어느날 친구를 만나러 구로 공단에 갔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게 됐다. 데모가 한창이라 최루탄이 쏟아지고 잠시 갇혔었는데 그때 ‘서울이라는 한 공간에 살면서 전혀 다른 삶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작품에서도 억압받는 이들을 다루기는 했지만 주로 대중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이들은 평생 그런 작업을 해온 친구들이다. 그들의 행보가 놀랍고, 이번 전시에 초대된 게 과분하고, 죄스러운 마음도 든다. 만화 산업을 이야

격동의 근현대사 5월 광주 그린 강풀 ‘26년’ 등 대표작 6개

광주시립미술관 6월말까지 전시…“만화는 대중 매체, 소통 도음”

기하런 난 늘 중심이지만, 민중항쟁 등의 이야기를 할 땐 나는 변방이니까.”

순이라는 시골 여성이 공장과 사창가를 떠나면서 결국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를 고발한 리얼리즘 만화 ‘머느리밭꽃에 대한 보고서’는 ‘순이’라는 제목으로 이 작가의 또다른 작품인 항일만화 ‘활’과 함께 일본에서 출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앙일보·한국일보 등에 시사만화를 연재했고, 이번 전시에는 한국 독립군의 투쟁을 그린 ‘폭탄야’를 전시 중인 85세 고령의 박기정 작가는 시사만화가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난 만화를 그린 지 평생이 오래됐다. 내가 등단(1956년)한 후 만화라는 장르는 늘 필박과 공갈을 많이 받았다. 만화를 그리는 건 늘 싸움의 과정이었던 것 같다. 중앙일보에서 시사만화를 그릴 때는 전두환 정권이었는데 필박과 공갈을 많이 받았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어지간히 심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시사만화를 못 그리겠구나’ 전화 협박도 많이 받았었다. 요즘 시사만화의 강도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 시사만화는 매서운 맛이 있어야 한다. 시사만화 작가들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싶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 직접 제작한 ‘폭탄야’ 주인공을 소재로 한 캐릭터 인형도 전시 중이다. 특히 문재인·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의 특징을 고스란히 잡아낸 캐릭터 인형은 ‘시사만화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박건웅 작가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부부가 딸인 제시를 키우며 기록한 육아일기를 동명의 그래픽 노블로 재구성한 ‘제시 이야기’를 전시 중이다.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도 번역 출간됐다.

“만화는 대중적인 매체여서 어려운 소재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역사나 인권, 평화 등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풀어내고 소통하는 데 만화는 도움이 된다. ‘제시 이야기’는 독립운동가가 쓴 작품이지만 육아일기라는 형식을 빌려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부모의 시각으로 기록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상이 녹아 있는 작품이고, 날 것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처음 원작을 접했을 땐 어떤 점에서 ‘안네의 일기’ 같은 느낌도 들었다.”

“노근리 이야기” 등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작품들을 꾸준히 펴낸 작가는 5월 정을 성 관련 만화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신문에 연재한 시사카툰 ‘삼팔육식’을 통해 많이 알려진 황중환(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교수) 작가는 시사만화가 갖는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사만화의 방향은 여러가지라고 생각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투쟁하는 만화를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공기처럼 우리 일상에 민주주의가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 일상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 관계속에서 성숙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작품들도 필요하다. 불의에 분노하는 그림도 의미가 있고 평화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화를 통해 독자와 교감하는 건 중요한 경험이다. 만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인권 정신을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며 평화와 배려,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따뜻한 시각으로 그리고 싶다.”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태일이’의 최호철 작가는 대학 때 읽었던 ‘전태일 평전’을 접하며 작품을 그려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만화를 그리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 이야기를 다루었고, 감동받은 이야기들을 만화라는 장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태일이’의 경우 작품 제목을 짓는데 많은 생각을 했다. 기존에는 열사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경외감을 담은 대신, 친구처럼 대하고 싶었고 ‘태일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만화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만화는 소통의 힘이 강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대학 때부터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체계전 피복노조 사무실에서 야학활동을 했고 소식지에 그림도 그렸다.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고, 오랫동안 꿈처럼 간직하고 있다.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전시장에는 당시 노동현장을 생생히 담은 원화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613-7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뮤지컬 ‘웃는 남자’ 10~11일 상영회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 뮤지컬 ‘웃는 남자’(사진) 상영회가 오는 10일에 이어 11일 한차례 더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2시간 20분 여 동안 뮤지컬 ‘웃는 남자’를 상영한다. 추가 상영은 10일 상영회가 지난 3월 조기 매진되면서 관람 희망 문의가 잇따르면서 결정됐다.

지난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오

른 이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이다.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작은 스크린’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각도에서 10대 이상 카메라로 촬영된 초고화질 공연 영상을 생동감 있게 객석에 전달한다.

7세 이상 관람가. 입장료 무료(선착순 100명). 예약 062-670-79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악&홀릭 컴퍼니, 6일 요양원 찾아 국악 공연

국악&홀릭 컴퍼니(사진)가 오는 6일 광주시 광산구 삼계동 장수실버그린노인 전문요양원을 찾아가 국악 공연을 연다.

이날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 ‘2019 신나는 예술여행’의 하나

로 열린다. ‘힐링! 캠프 국악소리 여행’에 스며들다. 국악의 소리로’를 주제로 열리는 공연에서는 기악합주·판소리 등 다양한 국악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참여 기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인문 분야 미취업 전공자가 서로 협업해 기획, 운영하는 인문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모 대상 기관은 지역의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지역서점(독립서점·책방 등) 등의 생활문화시설을 비롯해 서원 및 향교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을 갖춘 민간의 다양한 문화·인문단체다. 참여를 원하는 생활

문화시설은 인문의 가치를 나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문전문가와 협업해 기획·제출하면 된다.

공모 심사를 거쳐 인문프로그램 100건을 선정하며 인문전문가 활동비(기획·강연 등), 운영비 등, 프로그램당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인문자원을 토대로 기획한 인문프로젝트도 20건을 선정하고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마감은 16일이다. 문의 063-219-285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